

## 이상일 회장, 청와대 중소기업인대회 참석



강석훈 경제수석(사진 오른쪽 첫번째)과 협회 이상일 회장(사진 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은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및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매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에 열리는 이 대회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청와대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현장에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데,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 초보기업에서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선을 다해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청년일자리와 수출 활성화, 중소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의 중

소기업계의 청년일자리 창출노력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중소기업계가 청년고용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회를 통해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과 인력자원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신산업·서비스산업에 원활하게 공급되는 공정한 시장, 바른 경제만이 더 큰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라며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찬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 및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취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유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인들과 각종 경제현안과 중소기업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환담을 나누고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

# 고태식 해기위원장, 경제사절 자격으로 이란·이집트 방문

협회 고태식 해기위원장 (왼쪽 세 번째)은 경제사절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 및 주형환 산자부 장관과 함께 이란 및 이집트를 공식 방문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기계설비건설발전위원회 고태식 위원장은 경제사절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지난 5월 2일 이란을 공식 방문했으며, 이와 연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함께 지난 5월 4일 이집트를 방문했다. 정부의 이번 경제사절단은 이란 236개사, 이집트 67개사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대규모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이 향후 이란의 철도, 도로, 병원, 발전소 등 인프라·에너지 분야 30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란 정상순방과 연계하여 개최된 이집트 경제

사절단 활동은 지난 3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시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주형환 장관은 대통령 예방을 통해 외화 환전 곤란 등의 문제를 겪는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비롯해 도시철도, 해수담수화시설 및 발전시설 등 이집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집트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경제사절단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한-이란 및 한-이집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 프로젝트 계약 및 MOU 체결을 비롯해 투자정책,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젝트 협력 등 다양한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11 상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희망 기업과 바이어 간 상담을 진행했다. 

## 제2차 기계설비산업선진화위원회 개최




기계설비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계설비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유호선)는 지난 5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활동 목표 및 범위 설정 등을 논의했으며 차후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유호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계설비산업이 무엇인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산업에 대한 정의 및 비전 등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기계설비는 <시공>에 초점

을 맞춰 논의되었지만 앞으로는 Construction이 아닌 Project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설계와 감리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기계설비산업의 위상 재정립 방안과 더불어 해외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실태 조사, 설계·감리에 대한 별도 연구용역 진행을 비롯해 기계설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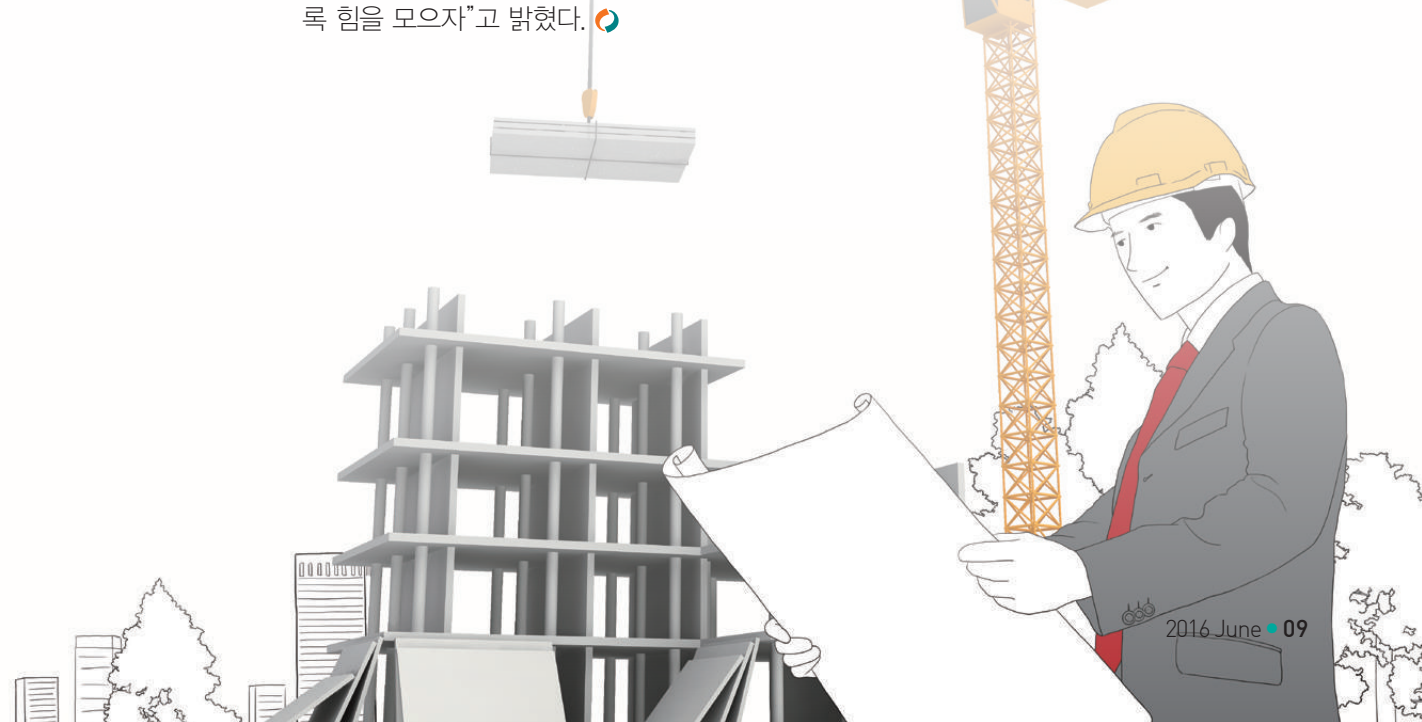
## 제38차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위원장 백종윤)는 지난 5월 30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3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조달청, 행복청, 국토부, 코레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농어촌공사, 인천공항공사, 산업부, 서울시 등과의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업무협의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LH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분리발주 공사 공고 현황을 보고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충북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및 청주 상당구청 분리발주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백종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에 이어서 충청북도에서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제정된 것은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타 시·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조문에 논쟁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방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법률에서도 분리발주 금지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 제66차 가스설비공사협의회 개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5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두형)는 지난 5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가스시설시공업 2016 워크숍 세부일정을 논의했으며,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양호 기준 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이두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LPG 배관망 사업의 분리 발주는 우리 업계 모두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이며, 이 사업에 우리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으며, “우리 회원사가 업계 전체를 위해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수주받은 공사도 완벽 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 제296차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5월 27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에서 제296차 운영위원회, 업계 초청인사 및 운영위원 친선운동을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회는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대상자 추천자를 심의·의결했으며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백종윤 회장은 “협회에서는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처의 우려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시공 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분리발주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사가 고품질 시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업무 추진실적과 6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회 6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6월 업무추진 계획

- 제7차 차세대기계설비건설인협의회 개최
- 대표회원 조찬 간담회 개최
-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추진
- 분리발주 현장 안전(품질)점검 실시
- 분리발주 수주회사 사후관리 방문상담
- 비회원사 회원가입상담 방문업무 추진
- 제35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 접수 및 서류심사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5월 27일 운영위원 친선운동 및 제29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 상반기 권역별 회원사 간담회 개최



제1 권역 간담회



제2·3 권역 간담회



제4·5 권역 간담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4월 26일 제1권역을 시작으로 5월 20일 제2·3권역, 5월 25일 제4·5권역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에는 총 30여 회원사가 참석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협회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회원사 원도급 수주 확대를 위한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권역별 간담회 활성화 및 참석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4권역 신입회장으로 (주)이일엔지니어링 정찬면 대표가, 제5권역 신입회장으로 창득설비(주) 송주창 대표가 선출됐다.

백종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에서는 회원사와 더 자주 만나 협회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되는 회원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니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회원사 상호 친목과 애로사항 발굴 및 수렴을 비롯해 협회 향후 추진과제 수립과 대 회원사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간담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권역별 간담회 참석 회원사 현황**

권역별 간담회	참석자	소속	직위
제 1 권역 4월 26일	박동일	(주)하나지엔씨	대표
	백강철	바스코리아(주)	대표
	이영철	(주)경성에너지	대표
	심수섭	에너지관리기술(주)	대표
	최재상	가진기업(주)	대표
	성하동	(주)산돌기술	대표
	전두상	상신기계공영(주)	대표
	김지수	중앙설비(주)	대표
	장남수	현성버스(주)	대표
	김용근	(주)유신테크	대표
	이경석	수봉산업(주)	본부장
	김영석	(주)대성엔지니어링	대표
제 2 · 3 권역 5월 20일	염규봉	(주)극동플러스	대표
	조용식	(주)메타이엔씨	대표
	김재선	(주)엑신건업	대표
	이종숙	(주)상신프렌트	대표
	윤종진	서울공조(주)	부사장
	이창수	성원종합설비(주)	대표
	송재호	(주)경성씨이엔지	대표
	안철린	(주)에너지이엔씨	대표
제 4 · 5 권역 5월 25일	박경례	(주)탐진이엔지	대표
	정찬면	(주)이일엔지니어링	대표
	임학연	광영설비(주)	대표
	강래원	(주)이레에너지테크	대표
	김귀진	(주)농은이앤씨	대표
	하남식	(주)록원이엔씨	대표
	송득중	(주)경동하우징	대표
	양낙승	태승디엔씨(주)	대표
송주창	창득설비(주)	대표	
한기돈	도합기공(주)	대표	
김재열	(주)빅뱅	대표	




# 자문 대표회원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5월 20일 서울 노현동에서 자문 대표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계설비건설업계의 통계현황과 협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백종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권역별 간담회 등 각종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면서 “특히 자문대표회원 간담회와 차세대기계설비건설협의회는 선배에게 지혜를 구하고 후배에게 경험을 물려주는 서울특별시회의 매우 중요한 모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백종윤 회장은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공사 수익성 제고를 위해 관내 분리발주 확대를 적극 추진하

고 있으며, 하도급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각종 불공정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자문 대표회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설명했다. 

### 간담회 참석 자문 대표회원

성명	소속 및 직위
김재하	건우기계설비(주) 대표
신윤하	국제산공(주) 대표
박상심	삼보건축설비(주) 대표
이영일	(주)금성설비기술공영 대표
김광남	영풍진흥기업(주) 대표
배봉근	풍산건업(주) 대표
황갑주	(주)광장이엠씨 대표
황선복	삼진공작(주) 대표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5월 20일 서울 노현동에서 자문 대표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2016 부산설비 기술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회를 비롯한 '부산권 설비 4개단체 연합회'는 지난 5월 26일 2016년 부산설비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회(회장 김재업)는 지난 5월 26일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설비기술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설비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 영남학회 및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2016년 부산설비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400여명의 설비 관련 엔지니어링 및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세미나 본행사를 비롯한 제3회 설비신기술상 포상이 개최됐으며, 11개 연합회 회원사가 참여한 ‘인재와 일자리 만남’과 13개 자재업체가 참여한 ‘설비 기자재전’이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부산권 설비 4개단체 연합회 김재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연합회와 부산광역시가 함께 개최

하는 세미나가 올해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재업 회장은 또한 “우리 기계설비건설업은 미래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업종으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육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계설비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비롯해 우리 업체의 재산성과 물량확보 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 정경진 행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대행사로 열린 설비 기자재전(왼쪽 네 번째 김재업 회장,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정경진 행정부시장)

“오늘 개최되는 ‘2016 부산설비 기술세미나’가 건설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설비기술의 미래에 무한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낙동강 시대의 개막으로 글로벌 도시로의 대도약을 위해 기계설비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발표자 및 발표주제**

발표자	소속	발표주제
조재훈 교수	인하대학교	초고층건축물의 연돌현상 및 엔지니어링
윤상도 교수	동아대학교	특허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백수현 부장	(주)대열보일러	멀티직화식 온수보일러에 대한 이해
엄윤섭 박사	우성밸브(주)	CONTROL VALVE의 선정과 최신동향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하대학교 조재훈 교수의 “초고층건축물의 연돌현상 및 엔지니어링”, 동아대학교 윤상도 교수의 “특허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대열보일러 백수현 부장의 “멀티직화식 온

수보일러에 대한 이해”, 우성밸브(주) 엄윤섭 박사의 “CONTROL VALVE의 선정과 최신동향” 등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지역의 건축설비와 산업설비의 기계 및 에너지, 환경, 자동제어분야에 관한 학문 연구와 신기술 활용 촉진 및 기술발전 도모를 위한 제3회 설비신기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주)린텍 김한지

대표와 (주)성일 박재근 대표 등 4명에게 부산광역시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제3회 설비신기술상 수상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훈격
김한지	(주)린텍 대표	부산광역시 시장 표창
박재근	(주)성일 대표	
정연태	(주)중앙이앤씨 대표	
송창남	(주)에스씨앤테크 대표	




제3회 설비신기술상 수상자

## 2016 회원 친선운동 개최

대구광역시회는 회원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회원친선운동을 개최했다



대구광역시회(회장 김주환)는 지난 5월 11일 대구 컨트리클럽에서 김주환 회장과 이한수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40여명의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6 회원 친선운동’을 개최하고 회원사간 체력증진과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결속을 다졌다.

김주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건설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기계설비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사간 정보교류와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선 대회를 마련했다”면서 “전날 내린 봄비로 꽃가루가 쓸려나가고 맑은 날씨 속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으니, 푸른 하늘 아래에서 마음을 터놓고 덕담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2016 울산·경남도회장배 체련대회 개최



울산·경남도회는 지난 5월 18일 경남 고성에서 친선 체련대회를 개최했다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원열)는 지난 5월 18일 경남 고성 노벨CC에서 ‘울산·경남도회장배 친선 체련대회’를 개최하고 회원사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번 체련대회에는 울산·경남도회 산하 친목협의체인 울산협회, 중부협의회, 서부협의회에서 대표 지역선수 36명을 선출하여 경기에 출전했다.

김원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사의 결속을 더욱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체련대회에 많은 회원사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우승한 장재일 대표(우)에게 우승트로피를 수여한 김원열 회장(좌)

“어려운 건설경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사의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협회는 회원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

다”고 밝혔다.

울산·경남도회는 체련행사와 더불어 협회 사업추진 현황을 비롯해 기계설비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했으며, 회원사 경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범양이엔씨 장재일 대표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광명테크 박종구 대표가 메달리스트 상을, (주)구룡설비 김효정 대표가 준우승을 수상했다. 또한 (주)대주엔지니어링 손태환 대표와 우경테크(주) 김일곤 대표가 각각 롱기스트와 니얼리스트에 기록됐다. 🌈

### 체련대회 입상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구분	지역
장재일	범양이엔씨 대표	우승	창원
박종구	광명테크 대표	메달리스트	창원
김효정	(주)구룡설비 대표	준우승	울산
손태환	(주)대주엔지니어링 대표	롱기스트	울산
김일곤	우경테크(주) 대표	니얼리스트	창원

## 민·관 합동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울산 · 경남도회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울산지역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울산 · 경남도회(회장 김원열)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달간 울산광역시 하도급 TF팀과 합동으로 울산지역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회원사 수주활동을 지원했다.

울산광역시의 민 · 관합동 하도급 실태조사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일감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울산 · 경남도회를 비롯한 지역건설단체가 건의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내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올해는 119개(상반기 60개, 하반기 59개) 울산지역 대형건설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 · 경남도회는 울산광역시 하도급 TF팀과 함께 하도급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우리 회원사의 시공참여율을 높이고 각종 하도급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